

성명	강진혁	수험기간	2022.04.~2024.07.
학교	제주대학교	전공	화학공학과
키워드	부진정동차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에61회 변리사시험에 부진정 동차로 합격하게 된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차합격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합격을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1차를 두 번 보았고2차를 한번 보고 합격했습니다. 1차를 처음 본 당시 점수는 민법60점, 산재법77.5점, 자연과학을 35점을 받아 떨어졌으며(평균57.5, 커트라인70.8) 두번째 본1차시험에서 민법92.5, 산업재산권법95점, 자연과학67.5점을 받아 합격했고(평균85, 커트라인76.66), 24년도2차시험에 민사소송법66.66, 특허법43.66, 상표법57점, 디자인보호법7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평균55.77, 커트라인55.22)

200명의 합격자가 있다면200개의 공부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합격수기도200개의 공부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참조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글은1차를 아쉽게도 낙방하시는 분들, 전략적으로2차시험을 준비하실 동차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공부

[민법]

☑ 교재 및 강의

교재 :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포인트 객관식

수강 강의: 기본강의(22.4~22.5), 중급강의(22.7~22.8), 최신판례강의

☑ 60회 기간 [24/40, 60점]

공부방법을 잘 모르고 자신의 실력을 잘 점검하지 못하고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방법만 따라한 것 같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중급강의를 수강한 후 민법공방연습을 풀이하였습니다. 무작정 민법공방을 회독한 후 민법공방연습을 풀이하여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로 공부를 하였고 민법공방을 회독 후 바로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 자신이 틀린그림찾기를 하고 있다는지 모르고 정답률이 높다는 이유로 오답풀이도 제대로 안하고 법리도 이해를 안한 상태로 '무지성'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에게 상담으로 '민법공방연습 정답률이 그래도 좋은데 실제 시험에서 잘 나올까요?' 라는 의미 없는 질문을 했다가 따끔하게 혼났고60회 시험에서 회차에 맞는60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때에는 수험생의 태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61회 기간 [37/40, 92.5점]

우선 민법에 대한 법리가 부족한 것 같아 중급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 대신 교수저 요약서를3회독 정도 했습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기본민법'이라는 책인데 700페이지의 요약서에 교수님의 법리가 들어가 있어 빠르게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기본서로는 절대로 삼지 마세요. 예외인 판례가 없고, 판례가 너무 요약이 되어있어 비효율적입니다.)

그 후 민법공방연습을 일정 파트를 푼 후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서를 회독하였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민법공방연습을 풀면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푸는 느낌이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은 모든 지문이 OX로 되어있고 지문 별 해설이 현재 변리사시험 모든 민법 객관식교재 중 가장 자세하여5지선다 문제집들보다 법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포인트 객관식이라는5지선다형을 구매하여 풀이했습니다. 이 시험은5지선다 시험이고, OX 시험이 아닌 점, 이미 김동

진 강사님이 나중에 올려주시는5지선다 기출문제 파일을22년도에 다 풀어본 점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5지 선다를 구매했습니다. (민법공방을 보시는1차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굳이 따로5지선다형까지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5지선다형의 장점은 '정답 결정력'이 있는 지문을 찾아내는 스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진 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처음 보는 지문은 정답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5지선다의 객관식 문제집을 풀며 몸소 느꼈습니다. 이후 짱 돌 특강은 따로 듣지 않고 '나오면 틀리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갔고61회 민법에서 무난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산업재산권법】

☑ 전략

1차에서 산업재산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입니다. 예전에는 판례중심으로 출제가 된 해도 많고 판례, 조문형 문제가 균형적으로 출제된 적이 많지만 최근60회, 61회는 '조문'에서 치사하게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계없이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최대한 조문을 잘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 특허법

* 교재: 리담특허법, 리담특허법 객관식(22년판), 리담특허법 조문노트, 테마특허법

* 수강강의: 기본강의(22.5~22.6), 중급강의(23.10~23.11), 최신 판례강의

(1) 60회 기간(15/20)

절차법이라 처음 접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임병웅 변리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리담 특허법을 회독을 하였는데 통상 처음 진입하는 수험생의 고비(확대된 선출원주의, 보정, 우선권주장, pct) 부분을 볼 때 너무 괴로웠으나, 이후 회독을 거치면서 점차 이해가 되고1차 기간이 얼마 안남았을 때에는 오히려 민법보다 특허법이 더 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만 풀 고 모든 회차별로 풀 때 거의 다 맞아서 잘 치를 것이라 생각했지만60회때 출제기조가 약간 변화되어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 니다.

(2) 61회 기간(20/20)

23년2월에 공탈한 후 합격의 기대도 하지 않은 채로3월부터6월까지2차공부를 하여7월부터 다시1차공부에 진입했습니다. 7 월에 특허법의 정통 교재인 '리담특허법'을 회독하며 법리를 이해하려고 했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자 '리담특허법 객관식' 을 풀며 어려운 문제에도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리담특허법 객관식' 문제집은 조문을 기출보다 더 치사하게 변형해서 조문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줬습니다. 이후10월에 중급강의를 수강하며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11월부터 다음해2차시험 에 사용할 교재에 대한 익숙함을 갖고자2차기본서에 단권화를 하고 조문집을 병행하여 회독 수를 높였고 최신 판례강의도 수 강하고 모의고사도 다수 치르며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 상표법

* 교재: 상표법강의, 리담상표법, 최지환 최종정리강의 자료, View 조문노트

* 수강강의: 기본강의(22.6~22.7), 최종정리강의(23.12), 최신 판례강의

(1) 60회 기간(7/10)

상표법은 대부분 특허법을 수강 후 듣는 점,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에서 특허법보다는 낯설지 않은 과목입니다. 상표를 처음 배울 때, 알고 있는 상표들인 김밥천국, 알바천국, 샤넬 등의 표장을 보며 판례를 공부하니 재밌게 공부한 경험 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공부법대로 기본서 회독-> 기출문제풀이를 하고 따로 객관식은 풀이한 적이 없었으며 조문은 소홀 이 봤는데60회1차시험에서 조문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 철퇴를 맞았습니다.

(2) 61회 기간(9/10)

60회때 조문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자 조문공부도 꼼꼼히 하였습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리담상표법을 회독하여 법리를 이 해했고, 조문노트도 구매하고 객관식 문제집도 구매하여 다회독을 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 교재: 디자인보호법의 기본과 이론, 김웅 최종정리집, 리담디자인보호법 객관식

* 수강강의: 김웅 기본강의(22.7), 김웅 최종정리강의(22.12, 23.12)

(1) 전략

디자인보호법은 제일 난이도가 무난하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특히, 상표는 출제기조가 살짝 변형될 수도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은 출제기조가 변형되더라도 특허와 비슷한 법리가 많기 때문에 특허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므로 공격적으로 준비하시어9~10개는 무조건 맞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웅변리사님은 실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고 학계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며 강의력도 뛰어나시고 책도 깔끔해서 김웅변리사님의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2) 60회 기간(8/10)

거의 모든 1차 수험생이 듣는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이후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김웅 변리사님 최종정리집으로 단권화를 하여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3) 61회 기간(9/10)

1차를 떨어지고7월부터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서를 회독하며12월에 최종정리강의를 현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김웅변리사님의 최종정리강의는 하루만에 끝나기 때문에 하루만에 디자인보호법을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강을 들으러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 최종정리집을 시험장까지 가져갔습니다.

[자연과학개론]

☑ 서설

저는 자연과학을 웬만한 수험생분들보다 잘하지 못하기에 공부방법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자연과학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물리, 생물, 지구과학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오시고 화학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물리도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니 생물, 지구과학을8개 이상은 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물리

* 교재: 손용욱 기본강의교재, 로한의 물리학

* 수강강의: 손용욱 기본강의(2022)

(1) 60회(2/10)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기본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공식집에 단권화해서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식을 문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60회때 급격히 어려워져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2) 61회 (7/10)

60회때 사용했던 교재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더 맞아서60회때와 똑같이 기본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공식집에 단권화해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하며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하였습니다.

☑ 화학

* 교재: 새로운화학

* 수강강의: 기본강의(2022)

(1) 전략

대부분 맨 마지막에 푸는 과목이며, 솔직히40문제60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시는 것 같습니다. 평형, 속도론, 산화환원, 용해 파트는2분내로 풀기 힘들게 나오니 화학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할 파트이고, 대신 분자, 전기화학, 착 화합물, 이성질체 같은 파트는 매년 나오고 난이도도 비교적 수월하니 이 단원들은 공격적으로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2) 60회(3/10)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화학에 베이스가 있다 생각하여 기본강의만 수강하고 기출문제만 푼 후 들어갔습니다.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2개를 맞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 61회(5/10)

충격을 받은 후 5개 이상 반자는 생각으로 객관식문제집을 병행하여 대비했습니다. 평형, 속도론도 버리지 않고 대비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잘 안 풀려서5개밖에 맞지 못했습니다.

☑ **생물**

*교재: 핵심따뜻한생물, 시냅스

*수강강의: 기본강의,기출강의(2022), 노용관 기본강의(2023)

(1) 60회(3/10)

기본강의, 기출강의를 수강하고 기출문제집만 회독하였습니다. 기본이론을 응용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2) 61회(7/10)

23년도 하반기부터 기본강의를 새로 수강하고 시냅스를 풀며 틀린 부분에 대하여 핵심 따뜻한생물을 읽으며 생물을 공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모의고사도 몇 개 풀어보며 실전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 **지구과학**

*교재: 지구과학 하이엔드

*수강강의: 박준희 기본강의(2022.9), 박준희 최종정리강의(2022.12)

(1) 전략

지구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에 비하여 양도 적고 이해해야 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것을 단순 암기를 할 경우 힘들 수도 있으나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는 수월하므로 공격적으로9개 이상은 가져가실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박준희 강사님의 책은 단원 별 창작문제, 책 끝에 요약파트, 연도별 기출, 필기노트가 있어 변리사시험 지구과학에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력도 훌륭하시므로 박준희 강사님의 강의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2) 60회(7/10)

9월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듣는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공부한지 오래되어서 다들 전략과목이라고 하는 지구과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순 암기가 너무 어려워12월즈음에 최종정리강의를 다시 수강하고 기출문제+기본서 내 단원 별 문제집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3) 61회(8/10)

별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전년도 책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서 내에 있는 단원 별 문제와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박준희쌤의 객관식문제집도 구매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하였습니다. 시험에서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하나 나오고 실수도 하여8개밖에 맞지 못하였습니다.

[수험생활]

☑ **공부시간**

60회때는 본가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고, 61회를 대비할 때11월까지 본가에서 공부를 하다가11월부터 신림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은 따로 측정을 안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10시부터 저녁12시까지 공부하여 순공 시간 약10시간 정도를 한 것 같고 일요일은 대부분 휴식을 취했습니다.

☑ 공부방법

법과목은 기본서를 처음부터 덮을 때까지 한과목만 공부했습니다. 처음 떨어질 때 많은 합격수기와 같이 오전에 민법을 하고 오후에 산재법을 하고 저녁에 자연과학을 했는데 큰 점수차로 떨어지고 공부방법을 바꿨습니다. 법과목을 한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공부하면 머리속에 각 단원들이 빠르게 연결되어 법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저에게도 맞는 공부법이었습니다. 이후 늦은 저녁부터 자연과학을 조금씩 했습니다.

☑ 체력관리

저는 수험기간동안 체력관리를 잘 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수험기간 내 종종 헬스를 다녔으나 오래 다니지 못하고 최대한 체력이 되는 만큼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운동을 무조건 꾸준히 하시어1차때 미리 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운동을1시간이라도 하시며 체력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하느라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하시면 운동하면서 세트별 쉬는 시간에 조문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멘탈관리

첫1차시험에서 약14점차로 떨어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T성격이 좀 강해서 슬퍼함은 잠시 멈춰두고 '내년엔 무조건 잘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슬럼프는 쉴 때 쉬는 편이라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임박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1회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으며 휴식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다음날 지장가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도 하루도 안 쉬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퍼져서 공부 효율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험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매년2월을 목표로 하는 장기 레이스이고, 어떻게 보면7월까지 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중간에 슬럼프가 오면 큰 타격이 있으니 가끔씩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타]

☑ 1차 모의고사

1차 모의고사 무용론과 유용론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전 감각 대비용으로의 도움은 조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력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실전 전략 대비용으로 많으면3회 정도를 추천하지6월부터 매달 치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1회를 보며 현장감을 느꼈고 학원 모의고사2회를 쳤습니다.

☑ 1차시험에 대한 마음가짐

1차시험도 충분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약3600명이1차시험에 응시하며 이 중600명만이 붙으며, 산재법을 거의 통달하신1차합격 경험이 있는3시생분들, 1차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재시생 분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대평가' 시험에서 조금만 하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어떻게든 한번에 붙을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1차를 한번 떨어지면 입장에서 충격이 매우 큼니다. 2차는 한번 떨어지면 내년에 기회라도 있는데1차를 떨어지면 남들과 같이2차 공부를 하기에는 자신은2차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괴로움으로2차시험을 동차생들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기도 매우 힘들고, 동차생들은7월부터9월즈음까지 휴식을 취하는데1차를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운 날씨에 다시 1차를 공부하여 남들보다 체력도 고갈되어2차시험에 들어갈 경우 체력도 불리할 것이므로1차를 한번 떨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 방향성

이 시험은 방향성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낙방한60회 기간에는 회독 수를 일일이 다 세며 각 과목10회독 이상은 했고 순공시간도10시간을 넘겼지만, 이후61회 준비기간에는 공부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집중이 안될 때에만 열풍타를 키고 공부했으며, 회독 수는 세지도 않았는데 평균보다 약8점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회독 수, 공부시간 등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게 맞는 방향으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몇 회독을 하면 합격권이다'가 아닌 '잘 이해하고 객관식 풀이가 대비되어 있으면 합격권'인 것 같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점수: 66.66(64/40/61/35), 20p

* 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진도별 기출문제 핸드북, 윤곽 민사소송법,

* 수강강의: 이창한 기본강의, 사례강의(2022) 기초gs(2023), 실전A,B(2024)

* GS: 이창한 실전A,실전B, 이창한 기초GS, 객준형B(온라인), 모의고사1회

동차생들의 최대의 고비인 과목이자 기득 이상부터는 무조건 고득점을 받고자 하는 과목입니다. 대부분 들으시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사례강의를2022년도에 수강하고1차를 광탈한 후2023년에 기초gs를 듣고2024년에1차 합격 후 곧바로 회독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소송법 지식이 거의 휘발된 상태이지만 지금부터 회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기득 이상 분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해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 일부는 강의를 듣고 무작정 회독하면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4월부터 작년에 푼 기초GS문제들을 한번 풀었고, 5월에 이창한 강사님 실전A를 강의 조교활동을 하며 수강했으며6월에 실시간영상반으로 실전B를 수강했습니다. 5월 실전A에서 책을 보면서 쓰는데도 등수는60~80%정도를 계속 유지했고 한 회차에서300명 가까운 수강생 중 뒤에서3등을 한 뒤 이대로는 절대 못 붙겠다 생각하여 시험1주 전까지 전화 암기스터디를 했습니다. 기득분과 진행을 했으며 약30분동안 진행을 하였으며 분량을 정한 후 일정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6월 실전B에서도40~60%대로 좋은 성적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전gs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더라도 동차들의 암기는7월에 완성되고, 남들보다 딱 하루만 잘하면 되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며 끝까지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을 기득 이상의 분들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기에 사례집은 거의 보지를 않고 기출문제 핸드북, 기출문제10개년과 이창한 강사님 실전A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B는 너무 어려워서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과감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공부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점수: 43.66(33/23/46/29), 19p

1. 2023년도

1차를 떨어진 후3월부터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2차 공부를 했습니다. 기초gs형식의 강의를 수강한 후 실전gs를 수강하였고 이때2차 공부를 미리 해 두었던 것이2024년2차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전gs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였는데 책을 보고 푸는데도 문제4번까지 풀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나는 올해2차시험을 보지도 않는데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차를 한번 떨어지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시1차를 공부하지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2차 공부를 미리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눈에 바르기’와 ‘답안에 현출하기’ 사이의 벽을 인지하고 다시1차를 준비하여 다음 년도2차를 대하는 동차와 아무것도 모르는 채2차를 진입하는 동차의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024년도

3월에 간단하게 소형 강사님의 기초gs강의를 수강 후4월부터 실전gs에 도입했습니다. 4월 실전gs는 기본서와 같은 강사님의gs이어서 등수는20~50%였으며 이후5월, 6월에 박형준 변리사님의 콜라보gs B형을 수강했으며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 A도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gs에서 등수는40~60%정도였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gs는 문제의 러프함, 조치형 문제들이 기출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내신다고 생각되었고,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연습하기도 좋으며 실제로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해서 비슷하게 내십니다. 현재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변리사님이시니 위치 확인 용도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10월에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 판례강의를 듣다가 붙어버렸는데 준특허법은 목차집이 사례풀이를 구조화하기 좋게 수록되어있고, 개념 이해를 위한 각종 논문, 판례해설서 등을 수록해놓은Basic Concept가 특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준특허법 판례집이 페이지수가 조금 늘어났지만 판례의 사실관계가 보기 좋게 요약된 것을 앞에 붙여 놓아 원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판례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상표법】

점수: 57점(44/27/61/39), 19p

1. 공부방법

상표법은 특허법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상표법은 시험에서 상표만 약간 다르게 변형되고 판례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복붙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례집을 위주로 공부를 대부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판례집을 위주로 공부하되,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를 꼭1회독 했습니다. 상표법의 출제 경향은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다가 갈수록 조금 평이하게 문제를 내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5개년 판례에서 자주 나오니(61회때는 금강, 컨투어 코일, 번 피트니스 판례가 출제되어3문제나5개년 이내 판례가 출제됐습니다.) 동차분들은 최소 최근5개년의 판례정도는 원문을 봐서 사실관계를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s는 대형강의, 소형강의 모두 수강했으며 대형강의에서는20~50%, 소형에서는 항상60%대를 유지했습니다.

2. 사안포섭

사안포섭이 특히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번에 상표법에서 자잘한 누락이 있는데도 점수를 관찮게 받은 것에는 사안포섭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유사판례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해당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오인, 혼동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경우 사안포섭을 ‘양 상표가 무엇이고 이것의 외관은~고, 호칭이~이며, 관념도~를 연상시키며, ~상품의 수요자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상표와 출처오인의 혼동을 할 우려가 있는 바, 양 상표는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판례에 있는 모든 요지를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70점(62/42/68/38), 17p

수강강의: 김웅 실전gs

교재: 택틱 디자인보호법

실무,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김웅변리사님의gs를 수강했습니다.

선택과목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은 가장 많은2차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서 자료가 많은 점, 1차때 디자인보호법을 배워서 익숙하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공학과목이 약하신 분들은 저작권보다는 익숙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기준을 외워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결론정도만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다른 과목들에 치이면서 공부하느라 디자인보호법은 밥 먹을 때, 실전gs 전달, gs 복습할때 이외에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등수는 잘 나올 때5등, 잘 안나올 때 뒤에서5등정도 했고 택틱디자인보호법과 김웅변리사님의gs 보충자료만을 회독했습니다. 이번에 김웅 변리사님이 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강조하신 판례가10년전에 사라진 유사디자인관련 판례였는데 이번에61회 디자인보호법 문제4번에 나와 스쳐 지나가면서 본 기억으로 잘 적을 수 있었습니다.

【답안지】

☑ 목차

목차를 잡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잡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례집을 풀이할 때에만 목차를 잡고gs나 실전에서는 목차를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워낙 글씨를 힘주고 쓰는 스타일이고 글씨체도 별로 좋지 않아서 목차를 잡고 문제를 풀이하면 도저히 16페이지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목차를 안 잡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gs에서 한번 목차를 잡고 풀려고 했으나 목차를 잡더라도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논점이 떠오르면 목차도 망가지고, 목차를 미리 잡나 머릿속으로 목차를 생각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나 목차 형식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서 목차를 안 잡는 방식으로 분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읽고 논점을 하나씩 뽑아내면서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논리적일지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 답안작성방법

(1) 전체적인 틀

Simple is Best라고 생각하여.논점II.쟁점(~여부-적,소극) III.결론 을 큰 틀로 잡았습니다. 논점정리나 문제의 소재는 안 적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기승전결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맨 앞에 논점을 꼭 기재하여 풀이의 방향성에 대하여 표현했습니다. 단문형태에서도 '진보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단문이 있는 경우 의의, 취지를 논점에 같이 기재하여 'I.논점 - 진보성의 의의,취지'라는 형태로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2) 쟁점 별 목차

'I.문제점 II.학설III.판례IV.검토 및 사안', 'I.의의, 취지III.판례IV. 사안'을 큰 틀로 잡았습니다.

1) 문제점

원칙과 예외가 있는 쟁점에서 예외인 판례가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쟁점에 '문제점'이라는 목차를 추가하여 '원칙적으로는~인데~인 경우 문제된다' 라고 짧게 기재를 하여 예외를 알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2) 학설

특허 상표에서는 웬만한 쟁점에 대하여는 학설, 검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무제한설, 제한설', '독립설, 종속설', '합유설, 공유설'과 같은 남들도 다 기재할 법한 학설은 짧게 기재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학설이 그래도 점수비중이 있는 편이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설을 기재하므로 학설을 버리는 것은 상대평가 시험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따서 키워드 중심으로 지어냈고 암기가 되는 부분들은 책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3) 의의, 취지

법학의 기본은 조문이고, 판례는 취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에 법전에 나온 법조문은 짧게 기재하되 취지를 판례문구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EX :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취지의 심판으로~이다. (제119조1항3호) 배점이 작은 경우에도1~2줄이라도 기재를 했으며 괄호에 조문 병기를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4) 판례

두문자파와 키워드파가 존재하는데 저는 두문자, 키워드를 전부 활용했으며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는 판례는 키워드를 따 암기했으며 특유발명과 같이 단순암기(ex : 소정하이구실(컴프발)) 해야하는 부분은 두문자를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식 답안을 지양했으며 해당 쟁점에 관한 판례만 기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gs채점자들의 블로그나 강사님들이 키워드에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면 그나마 채점하기가 편해진다는 피드백을 듣고 판례의 키워드에 작은따옴표를 표시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답안지를 채점할 시간이gs채점자들보다 적습니다. 자신이 썼다는 인상을 빠르게 주려면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사안 포섭 - 상표법 공부방법 참조

상표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사안 포섭은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갔는지 채점자들에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글씨가 매우 악필이어서 원문자를 주로 사용했는데 쟁점1~2개를 잡아 원문자 하나에 포섭하면 그나마 읽기가 편해진다는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기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안의 포섭 정도는 상표>특허>민사소송법 순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 공부시간

공부시간은1차와 마찬가지로9시부터12시까지를 기준으로 공부했으며, 시험2주 전에는7시부터11시~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시간은 측정하지 않았으나1차를 너무 오래 공부하여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나9~10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암기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 산책하면서 암기를 진행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11~12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2차시험에서는 주말에gs를 매달2개이상 들었으므로 주말에는 쉬지 못하고 일요일gs끝난 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휴식을 취했고, gs시즌이 끝나고 시험 한달 전부터는 쉬는 날 없이 공부했습니다.

☑ 공부방법

(1) 암기

암기를 별도 책상에 앉아서 진행하지는 않았고, 전화 암기스터디, 판례 쓰기스터디, FlashCards 어플을 통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전화 암기스터디는 민사소송법만 진행했으며 판례 쓰기스터디는 특허, 상표를 진행하였고 자료 하나의 일정 분량을 하루마다 외우고 와서 같은 자리에서 쓰는 스테디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암기는FlashCards 어플을 통한 암기였는데 민소, 특허, 상표에서 헛갈리거나 안 외워지는 학설, 판례를 넣었고 산책할 때, 독서실에 가거나gs를 쓰러갈 때, 식사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으며, 사용방법은 유튜브에 치면 나와있고 암기하기 매우 좋은 어플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회독

1차 공부방법과 마찬가지로 회독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5회독은 했지 않을까 생각되며2월부터5월까지 진도별로 지에스를 암기해가느라 급급했지만6월부터는 지에스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고7월26일,27일 시험만 잘 보자는 생각으로 원래1차때 공부했던 방식인 ‘하루에 한 과목’을 점차 줄여 나가며 공부했습니다. 전날에는 그동안gs에서 틀린 것들을 모아놓은 오답노트, 최종정리자료집 같은 얇은 것을1회독 하고 들어갔습니다.

(3) gs

저는 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민소를 제외하면gs를 여러 강사님 것을 들었습니다. 민소는 남들과 같은 공부를 하면 무조건 떨어지겠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출문제+이창한강사님의 실전A만 챙겼지만, 특허도 기본서 강사님 외2분의gs를 더 봤고, 상표는 기본서 강사님의gs 외3분께를 더 보았습니다. 여러 강사님을 본 이유는 자신의 기본서 강사님의gs를 보는 경우 배점도 그 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 배점이 딱 맞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시험은 그 강사님이 아닌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므로 특정 쟁점에 대하여 내가 아는 분량은10점분량인데20점분량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습할 수 있었고, 각각 강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달라 자신의 기본서 강사님이 강조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타 강사님gs에서 출제되는 경우 기출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쟁점을 대비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강의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확인+ 남들이 모두 보는 쟁점을 대비했고 소형강의로 그 강사님의 답안지의 장점을 배우기+ 합격자의 첨삭을 통한 피드백을 통한 답안지 보완을 하였습니다.

책은 2024년 gs에서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민소 몇 회차는 본 것 같습니다.) 책상이 좀 좁아서 책보고 쓸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항상 실제 시험을 본다는 각오로 임했으며 적을 수 있는게 없더라도 법리에 대하여 생각하며 판례를 지어내고 그 지어낸 판례에 사안을 포섭하며 분량을 억지로 늘린 적도 많았고, 도저히 쓸 것이 안떠올라 멍때리며2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허탈감을 자극제로 삼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 기타

저는 현존하는 모든 합격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합격수기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블로그, 학원의 합격수기를 점심, 저녁을 먹을 때 또는 심심할 때마다 보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습니다. 1차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순공시간, 회독 수, gs성적 등 형식적인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으로 시험의 본질적인 것을 묵묵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 글씨체

글씨체는 읽어볼 수만 있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심한 악필로gs에서8회중 한번은 글씨 신경 써주라는 소리를 들었고 박형준 변리사님의gs에서 가독성점수 최하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안 좋은 글씨체를 작은따옴표를 붙이고 원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인생에 한번 걸린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읽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 글씨가 저처럼 안 좋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 멘탈관리 - 동차분들께

‘동차합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차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gs에서 깨지면서 너무 힘들 것입니다. 판례는 암기한 것 같은데gs시간만 되면 현출은 못하겠고 다른 사람들은16페이지를 넘기고 다른 답안지를 가져오면서 작성을 하는데 쓸 것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들것입니다. 저도 뒤에서 10등안에 여러 차례 들며 ‘역시 동차는 힘드나..’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그냥 놀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끝까지 레이스에 완주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아도 동차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며2월부터7월까지 남들보다 못해도 딱2차시험 이틀 동안만 더 잘하면 합격하는 것이 이 시험의 잔인함이자 로망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동차시즌을 임하세요. 떨어지더라도 기득 시즌에 ‘불기득’이 되어 안정적으로 합격할 것입니다.

[기타]

☑ 기출분석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민소, 특허, 상표의 기출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아닐수도 있지만 Gs와 달리 민소의 경우 전통 논점이 많이 나오며 쟁돌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파트의 남들이 다 모르거나 통합의 회색박스 판례가 나오지 ‘쟁돌 파트’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판단되어 과감히 배제하고(ex : 국제사법) 중요한 부분의 학설, 판례 암기선명도를 더 높이는 전략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기출 경향을 파악해보니 전년도의 기출된 논점이2년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 특허 일사부재리, 민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상표 데이터팩토리 등) 따라서 전년도 기출문제에 논점으로 나왔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중요도를 낮게 보지 않고 암기를 충실히 한 결과 올해에도 ‘서증’ 부분이 출제되어(60회는 사본이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부진정 동차 기간

앞서도 특허법 공부방법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1차를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동차와 같은 커리큘럼으로7월까지2차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커리큘럼을 완주하시면 다음 해에2차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민사소송법’이라도 다른 동차생 분들과 같은 커리큘럼을 타시기 바랍니다. 동차의 고비는 민사소송법입니다. 동차생이 특허, 상표는6월 정도 되면 다른 기득이상 분들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는 올라오나, 민사소송법에 고비를 마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동차기간에 항상 불안한 것이 민사소송법이었고, 마지막까지 찻찻한 기분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동차생처럼 민사소송법을 들어 놓으신 후 다음해3월에 심화강의를 수강하며 사례집을 풀이하시고4월부터 바로 실전gs를 들어가시면 동차합격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합격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 4개월이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든 기간도 많고 체력도 고갈되며 무기력함을 느끼며 공부한 적도 있고 합격한 후를 상상하며 희망차게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 힘든 여정을 함께 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리사시험의 수험생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이후 같은 필드에서 뵙길 바랍니다. 또한 수험기간동안 저를 응원해주고 수험생이라고 밥도 많이 사준 복진쌀집 친구들, 제대 화공과 선, 후배, 교수님들, 가끔 만나서 맛있는거 많이 사주고 지갑 꺼내게 하지 않으며 잔소리 많이 해준 철우, 이외 많이 응원하고 도와준 친구분들, 친척분들,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변리사님들,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빠르게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변리사시험을 준비한다 해도 항상 응원해 주시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서울에 자취하면서 밥, 학원비, 월세를 모두 내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우리 부모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이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wlsgurclsrn@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